

# 테마칼럼

비정규제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와 경기

## 통합민주당 어째야 쓰까?



김 행

대선주자 없는 통합민주당의 '허세'는 결국 한여름 밤의 꿈이었나? 박대표는 처음부터 '대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어야 했다

”

정치란 영웅놀이다. 속내나 계산을 들켜선 안 된다. 크게 놀아야 한다. 해서 정치인은 소탐하면 대실한다. 박상천 통합민주당 대표는 영웅놀이에서 졌다. 그는 한달 전까지만해도 여유만했다. 통합민주당으로 합당되기 전 민주당 때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해찬,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장출신 정동영, 김근태, 신기남, 각료출신 천정배, 유시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병준 등을 '살생부'에 얹었다. "한사람도 탈락하지 없이 '대통합'에 동참해야 한다"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당부를 받고도 '소통합'에 연연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과 "호남은 내 것"이라는 '자만심'이, 그런 총기를 잃은 것이다.

### '역배제론'에 내몰린 박상천호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곧 한계에 봉착했다.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는 '불임정당'이어서다. 김근태 의원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더니 어느새 정동영, 손학규를 모으고, 열린우리당 이해찬 전총리와 김혁규 의원까지 대선후보 연설회에 불러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통합민주당만 대선후보연설회에 초대받지 못하는 '왕따' 신세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김혁규, 천정배 등 대선에비주자

6인은 '단일정당, 단일후보' 원칙에 합의했다. 시쳇말로 통합민주당만 "새 됐다". 이런 가운데 통합민주당 김효석, 신중식 의원 등은 박 대표가 대통합 합류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탈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DJ의 차남 김홍업 의원도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다급해졌다. "손학규 전경지사와 정동영 전열린우리당 의장은 중도개혁주의 노선에 동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노선에 동의하는 한 통합민주당 후보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급기야 박상천(朴相天), 김한길 공동대표와는 손학규-정동영과 만나 '대통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집토끼가 시원치 않다"는 겉이 아닌 씌이다. 박 대표는 6월 27일 창당대회에서 "늦어도 9월 추석전에 통합민주당 대선후보를 내놓을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오히려 "배제론"을 외치다 "역배제론"의 뒷에 걸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물론 민주당엔 대권주자가 있다. 이인제의원이 대권 삼수를 선언했고, 추미애, 김영환, 김민석, 장성민 등이 자칭 타칭 민주당 대선주자들이다. 김한길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의 가세도 예상됐다. 그러나 슬쩍히 이들만으론 '손님끼리' 어렵

다. 김근태 의원의 '대선후보자 연설회'가 본격화되면 통합민주당은 결국 설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 영웅놀이에서 이기는 방법

통합민주당은 열린우리당 해체를 통해 몸집을 불러 '대통합'을 이루고, 여기서 대선후보를 만들어 정권장악을 노릴 생각이었지만 '대선후보연설회'는 정당 중심 대통합이 아닌, '후보 중심' 대통합으로 궤적이 선화한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 전대통령까지 "민주당 중심으로 대선 후보를 내야한다"고 지원했지만 상황은 영 판관으로 굴러간 것이다. 대선주자 없는 통합민주당의 '허세'는 결국 한여름 밤의 꿈이었나? 박 대표는 처음부터 '대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어야 했다. 자기의 기록권을 철저히 포기하고, 그대 영웅놀이에서 이기는 방법이었다. 김근태의원의 '사즉생'과 박상천대표의 '생즉사'가 절묘하게 대비된다.

<전 중앙일보기자·정치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여수엑스포 유치 '평창 실패' 교훈 삼아야

강원도 평창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2차 투표에서 러시아 소치에 4표 차로 밀리고 말았다. 4년 전 캐나다의 밴쿠버에 3표 차로 역전패했던 상황의 재연이다.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여수는 평창과 비슷한 면이 많다. 평창이 재도전에 나섰듯 여수도 5년 전 2010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중국 상하이에 패한 쓰러진 경험이 있다. 여수가 현지실사나 프리컨테이션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경쟁도시에 비해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도 유사하다.

명분과 유치계획 등 모든 기준에서 앞섰던 평창이 실패한 것은 2차 투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전략적 잘못 때문이라고 한다. 뒷발이었던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의 표를 잠식당해 역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유치가 두번이나 실패한 강원도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과테말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경유지인 미국 시애틀의 동포간담회에서 "좀 부담이 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쳤다. 외교교통부장관은 "1차 투표에서 끝날 수도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결국은 참담한 패배였다.

정부는 평창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유치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연말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사무국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여수는 모로코 탕헤르, 폴란드 브로츠와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전략을 냉철하고 면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세계박람회는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외교전을 어떻게 펼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제계가 총력을 기울여 여수 유치가 성공해야 할 것이다.

## 광양항 항만공사 전환 서둘러선 안된다

정부가 광양항을 오는 2009년경 항만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양항이 항만공사로 바뀔 경우 정부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하게 된다. 항만공사로 전환되면 각종 기반시설 등이 열악해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지 우려되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갑자기 터져 나온 정부의 항만공사 전환 방침이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동북아 물류 허브항으로 육성키로 한 '투 포트' 정책과 맞바박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2개 정도가 항만공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항만이다"고 밝혔다. 광양항은 현재 연간 운영비 가운데 30%를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양항의 물동량도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 때문에 부산은 물론 인천항에도 뒤졌다. 여기에다 환적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동북부 물동량을 중국 상하이 양산항에 잠식당하는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을 이미 항만공사로 전환한 부산·인천·울산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오는 2009년 항만공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도 5일 울산항 항만공사 출범식 행사에서 "부산과 인천항만공사 출범 후 광양항의 효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며 "광양항과 평택항 등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광양항은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기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결을마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은 항만공사 전환 보다는 배후처리 개발 등을 통한 광양항의 자립기반 구축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다. 정부가 '투 포트' 정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항만공사로의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다.

## 無 等 鼓

거개의 사람들은 장마철이 지겹다고 한다. 주부들은 녹록한 습기에 마르지 않는 빨랫감이 싫고, 직장인들은 우산을 써야 하고 신발을 버리는 게 불편하다. 가슴 한 칸, 남몰래 지은 죄가 있다면 비를 맞을까 봐에 나다니는 것도 두서너개 짓이다.

면(不眠)의 밤이라면 승용차 안도 편찮다. 차창과 천장을 후두둑 때리는 소리에 잠이 절로 온다. 이른 아침, 비를 맞으며 산에 올라가는 것도 행복하다. 잔뜩 물기를 머금은 푸른 나뭇잎에 대롱대롱 매달린 빗물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모자 위로 떨어지는 굵직한 물방울의 느낌이 상쾌하다. 한 시간여 산책 후 몸을 씻고 누워, 다시 바깥 풍경을 보는 마음은 푸근하다.

### 장맛비 즐기기



며칠 전 방송인 김계동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안주는 빗소리"라고 말했다. 가히 주당(酒黨)의 경지에 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장맛비의 즐거움을 만끽하려면 우산을 쓰지 않는 게 좋다. 냇물 흐르는 길가 우수(雨水)를 부려 찾아다니며, 온몸이 흠뻑 젖을 때까지 쏘다녔던 어린 시절의 아스라한 기억처럼-

비에 각박한 우리의 삶에 품과 생기를 넣어준다. 여름 내내 익숙한 폭우를 기다리는 마음도 단조로운 일상을 탈출하고 싶기 때문일 게다. 하여, 시인 서정윤은 말하지 않았던가? '살아 있다는 것으로 비를 맞는다'고-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 의료칼럼

### 최지윤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서 주인공 한나(김아중)가 전신 성형수술을 마친 후 담당의사는 "코만 다시 하자. 코만!"이라고 말한다. 이 영화는 주인공 한나가 성형수술을 통해 소위 말하는 팔자를 고치고 자신이 짝사랑하던 상준과 사랑을 하게 된다는 영화이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코 성형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는 듯 한 부분이다. 이것은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잦은 상황에서 외모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명사록 '광

코끝이 뾰족하고 두툼하게 살아 오른 밸런스 '이미연'씨나 '고형정'씨의 코는 관상학적으로 재물을 불러오는 코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관상이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코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심리학적으로 코는 자신감과 진실성을 상징한다. 자신감이 없거나 거짓말을 할 때는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코를 만지곤 한다. 코에는 많은 혈관이 분포해 있어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충혈되게 되고 이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것이다. 코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예견해주는 도구이다. 콧물은 만지를 거르는 필터 역

### 예쁜 코 보다는 건강한 코가 중요

세(Pensees)'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다면,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말해 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관상학자들은 코는 가장 눈에 띄는 부위이자 인간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양에서도 코를 신분과 명예의 징표로 삼았으며, 죄를 지은 사람은 코를 잘라 외출을 못하게 했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오똑한 코는 건강한 혈통과 품위를 증명하는 신분증이라 할 수가 있었고, 서양에서 일찍부터 성형수술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코는 첫인상에서 성격이나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얼굴의 중심에 위치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축 역할을 한다. 동양에서 코는 재물이나 성공과 관련을 짓는다. 콧물물은 금고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 두툼한 게 좋으며 정면에서 볼 때 콧구멍이 자주 보이면 돈이 새나 갈 팔자라고 한다.

할을 하는데 만지가 많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이 많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다. 콧물의 상태를 보면 어떤 질환에 걸렸는지 짐작할 수 있다. 맑고 투명한 콧물이 쉴새 없이 나오면 알레르기 비염을, 끈적끈적하면 만성 비염을 의심해볼 수 있고, 누런 색깔의 끈적끈적한 콧물은 만성 축농증에 흔하게 나타나며 피가 섞여 있을 때는 급성 비염이나 비종격 만곡증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이제껏 관상과 코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과연 성형을 통해 얼굴의 균형을 잡아준다면 관상이 변하고 또한 운명이 변하는 것일까? 외관상 아름답고 균형잡힌 코가 훌륭한 코임에는 분명하지만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코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좋은 코라고는 말할 수 없다. 코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건강한 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기 고

### 전갑길



광산군은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혁신'과 '클린행정'을 두개의 수레바퀴로 삼아 '희망광산 건설'에 매진해왔다. 광산군 모든 공직자들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혁신은 거창하거나, 생활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언제든지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도 깨닫고 있다. 또 '금품과 향응제공물 0%'를 의미하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될 정도로 클린행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구청 전 공직자들이 한마

을 들어서도 살고싶은도시 시범도시 선정, 2007 대한민국 스포츠-레저문화대상, GS경영대상 품질경영부문 최우수상, 광주·전남 지역혁신 최우수구 선정 등의 영예를 안았다. 이같이 탄탄한 혁신의 바탕위에서 '클린행정'도 고강도로 전개하고 있다. 먼저 광주 최초로 감사담당 부서를 팀으로 독립시켜 감사부팀으로 개편하고 팀장 역시 사무관급으로 격상시켜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였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하반기에 각각 '청렴공무원'을 선정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법인카드를 유휴업소 등에서 사용하

### '혁신'과 '클린행정'

음으로 혁신과 클린행정에 기울인 각고의 노력을 돌아보면 감회가 새롭다. 우리 구는 혁신과 관련 행정의 비능률과 경직성을 해소하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팀제와 분부장제를 도입,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또 의식 개혁과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 반복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 분임조별 토론으로 진행되는 혁신 워크숍, 매월 열리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마일리지제 도입 등도 병행했다. 외부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 지방자치 대상,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 평생교육도시 선정, 정보화 우수기관 등 지난해 하반기에만 16차례나 각종 상을 수상했다.

지 못하도록 조치한 '클린카드제', 민원인 불편을 보충하는 '크리스탈 행정제도', 부정부패 신고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직소민원실'과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해소하고 있다. '민원외곽사무포터제' 주민참여예산 조례 '행정정보서비스 센터' 등도 시행중이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국가청렴위가 지난해 전국 304개 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청렴도 우수기관'(전국 8위)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광산군 800여 공직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반도 서남권의 중추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과 클린행정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광산구청장>

### 광주일보를 읽고

###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꾸준한 적응교육을

광주일보 7월 3일자 9면 '국제결혼·이민자 절반 "문화 차이로 적응 어려워요"'라는 기사를 보고 쓴다. 한국인과 결혼해서 현재 광주시 북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50% 이상이 한글과 문화, 관습의 차이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실 농촌으로 시집 온 외국인 신부들의 불편과 교육여건 부족 등은 훨씬 더 심각하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위한 프로그램의 확대는 물론 농

촌지역에도 더 한층 신경썼으면 한다. 이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와 국어교육, 풍속을 익히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수사항이다. 예컨대 최소한 차례상 차리기, 한국의 풍습과 언어예절, 호칭사용, 한국 음식 만들기 등이다. 광주시·전남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민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꾸준한 적응교육을 시켜 이들이 낯설고 외로운 이국생활에 따듯한 정을 느껴도록 한다면 호남 지역을 사랑하는 한국인으로 거듭나지 않을 까 싶다. ▲오동은·광주시 북구 운암동

### 차량 분실 오인·허위 신고 많아 경찰 치안서비스 차질

출근을 하려고 보니 집 앞에 세워 둔 차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면 누구든지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신고 받은 경찰은 차량철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경찰 전산망에 도난차량 수배 입력을 하게 된다.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검문검색, 교통단속, 교통사고처리 또는 순찰 중에 휴대전화 소회기로 조회를 하고 도난차량을 찾으려고 한다. 문제는 자동차 도난 신고 내용 중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본인 차량을 주차시킨 장소를 알지 못해 신고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갖지 못하자 채권·채무자가 차량 도난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오인·허위신고가 늘면 경찰력이 분산돼 결국 시민들에게 치안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창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業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경 제 부 2200-616 여론재무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78)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